

‘범죄 소굴’ 낙인에…전남 캄보디아 이주민들 ‘불똥’

한국행 막히고 비자발급도 어려워져…고국 방문도 ‘제약’
나라 이미지 타격 안타깝고 아이들 따돌림 당할까도 걱정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고수익 취업 미끼 납치·감금’ 사건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사는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향이 ‘범죄소굴’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여행 경보 상황 조정되면서 고향을 찾는 데 제약이 생긴 데다, 애꿎은 자녀들도 한국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17년 전 한국으로 온 캄보디아 출신 감수진(여·39)씨는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한국 오는 게 많이

막히고 비자발급도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감씨는 “다음달에 내 친구가 남편이랑 캄보디아에 놀러가려고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더라”며 “나라에서도 강하게 잡고 처벌해야 이런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라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에 온지 4년차인 짜어 쩌라온(28)씨는 “예전에는 그런 범죄 소식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늘었다. 최근에 고향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

라진 걸 느낀다”며 “‘캄보디아는 범죄도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아프고 상처가 된다”고 말끝을 흐렸다. 지난 2015년에 한국으로 와 영양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한 캄보디아 이주민도 “이번 일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를 위험한 나라라고 인식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가 괜히 부정적인 이야기에 휩싸일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캄보디아 이주민과 교민 등의 우려 섞인 글이 다수 게시됐다. 캄보디아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등 SNS에는 “시아누크쑈크 조심하시고 프놈펜도 밤거리는 유의해서라”, “당분간 EB(취업비자) 비자는 안될 듯

하다. 지난주 금요일 접수분 부터 접수가 안 되고 있다. 추후 상황은 일주일정도 지켜보셔야 될꺼 같다”등의 내용이 올라오며 현지 상황이 공유됐다. 반면 “여행객이나 교민들은 피해가 없는데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 걱정이다”, “하루 빨리 분위기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정부대처가 중요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여행을 준비하던 이들도 “캄보디아 여행 포기했다. 양코르와트는 언제봐도나”, “여행 예약 취소해야 할까 고민중이다. 다음달 예약했는데 요즘 여론이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현지 가이드로 일하는 등 여행업계 관계자들도 우려를 내비쳤다. 현지 가이드 비에스나(45)씨는 “여행오는 건 팬

찮지만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다. 11월에 예약했던 손님들이 80% 취소했다”며 “한국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주변 가이드들도 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호소했다. 가이드 변민(33)씨도 “취업하러 왔다가 한국에 못 돌아가고 붙잡혀 있는 한국 청년들 얘기를 들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도 중국인 범죄자들이 한국인을 납치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다”며 “관광객들이 많은 씨엠립은 괜찮지만, 프놈펜이나 시하누크빌처럼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 소굴처럼 여겨질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아파트 터치식 출입문 앞서 2시간 ‘발 동동’

‘세계 흰 지팡이의 날’ 앞두고 시각장애인과 동행해 보니
키오스크 등 첨단기술의 시대…장애물 더 생겨
“배리어프리 의무화 돼도 문제…시스템 개선을”

아파트 출입문 앞 손끝으로 터치패드를 더듬었지만 누르려는 숫자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 카페 키오스크 앞에서는 설치된 아무런 안내음도 들리지 않아 한참을 서있어야 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첨단 기술로 무장한 요즘 시대는 예전보다 더 오르기 힘든 장벽이었다.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세계 흰 지팡이의 날’(매년 10월 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시각장애 1급 오병임(55·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오씨와 이날 하루 2시간 남짓 동행하면서도 셀 수 없이 많았던 불편한 일상을 들여다봤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 데 사용하는 ‘눈’이자 ‘필수 도구’로, 시각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책임을 상징한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세상은 오씨에게만 일반인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하나 더 생긴 듯 했다. 오씨는 7살 때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에게는 흰 지팡이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감각이지만 아파트 출입구 차단봉에 부딪히거나 길가에 세워진 블라드(차량 진입 방지봉)에 걸려 무릎이 까지는 등 집 앞에서부터 위협전만한 상황을 겪는다. 오씨는 “내 집 앞이면 그나마 익숙한데 낯선 곳에서는 점자블록이나 안내 시설이 부족해 길을 찾기 어렵다”며 “매일 지나는 길에서도 횡단보도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가로등에 어깨를 부딪히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푸념했다. 최근 공공시설이나 상가, 아파트 등에서 늘어나는 터치식 출입문이나 키오스크 등 비대면 기기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장애물이다. 그는 “아파트 출입 방식이 버튼에서 터치로 바뀌면서 점자나 음성 안내가 없어 혼자서는 동호수를 제대로 입력할 수 없다”며 “번호를 누르다 실수해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취소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출입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동호수 번호를 잘못 누르는 것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통과하지 못해 지나가는 이웃 도움을 받기까지 2시간 넘게 서있기도 했다고 했다. 근처 카페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14일 시각장애 1급 오병임씨가 남구 백운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터치패드를 만지고 있다.

키오스크 패드를 더듬었지만 점자나 음성 안내가 없어 스스로 어떤 메뉴를 선택했는지, ‘매장 취식’과 ‘포장’ 중 어느 버튼을 누른 건지 알 방법이 없었다. 오씨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다”며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진정한 접근성 보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광주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2020년 7290명, 2021년 7203명, 2022년 7143명, 2023년 7091명, 2024년 7069명으로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남에는 2020년 1만 3844명, 2021년 1만3616명, 2022년 1만3385명, 2023년 1만3105명, 2024년 1만2852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만 매일 2만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생활 속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오씨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앞으로 의무화된다고 해도 혼자 가게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나만 해도 카페 입구 조작 못했었다. 기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과 안내 시스템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여수 30대 남성도 캄보디아 출국 후 연락 두절

“아빠, 아빠 두 마디 하고 전화 끊었는데…” 여수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연락이 두절돼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경찰은 지난 6월 ‘캄보디아로 간 가족 A(38)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가족들에게 “조선소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B씨와 함께 캄보디아로 일하러 간다. 수도공사를 하면 16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전하며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연락이 두절됐으며, A씨의 배우자가 지난 6월 23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가족들은 실종신고에 앞서 B씨에게 연락해 “왜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일하기 힘들니까 실종신고를 취소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 7월 14일에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부터 감기에 걸린 듯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구조해달라는 건지 무슨 신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에서 청년기업 일자리를 받아 농산물을 가공해 납품하고, 빵도 파는 등 사업을 2~3년 한 뒤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버지는 “아들의 소재 파악이 안돼 답답하다. 외교부에도 연락했지만 별 수 없었다”며 “아들의 증빙사진과 ‘살려주세요’라는 구조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5가지 항목 중 2가지가 없어 캄보디아 현지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외교부에 재외국민 소재 확인을 위해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전남 오락가락 비

광주·전남 지역에 당분간 흐린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말인 18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부터 16일까지 광주·전남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고 14일 예보했다. 15일 오전부터 16일 오후 사이에는 광주·전남 지역에 20~60mm의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5도, 최고 21~23도)보다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2~25도를 보이고, 16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나주시 하루새 10대 2명 숨져

나주시에서 하루 동안 10대 2명이 잇따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나주 빛가람동의 한 상가 앞에서 10대 중학생 A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 나주시 대호동 한 아파트 앞에선 10대 초등학교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등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